# 딥러닝시스템

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지능기전공학부

Structuring DL projects and hyperparameter tuning

#### ■ 학습 목표

- 성능 지표 정의하기
- 베이스라인 모델 설정하기
- 학습 데이터 준비하기
- 모델을 평가하고 성능 개선하기

#### ■ 학습 내용

■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딥러닝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결과를 분석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봄

- 4.1 성능 지표란
  - 성능 지표를 통해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음
  -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수단은 정확도
  - 정확도는 모델의 예측이 정답과 일치한 비율로 정의
    - 예) 100개의 입력 표본을 대상으로 90개에 대해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내렸다면 이 모델의 정확도는 90%

정확도 = 
$$\frac{$$
정답을 맞힌 횟수 전체 표본 수

- 4.1.1 정확도가 가장 좋은 지표인가
  - 문제 마다 적절한 평가 지표가 존재함
    - 예) 희귀한 질환의 유무(1백만명 중 1명 꼴로 발병)를 판정하는 진단 모델 설계
      - 99.999% 정확도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는게 옳을까?
      - 정확도만 보면 매우 높은 성능처럼 보이지만 이 시스템으로는 실제 질환을 가진 사람을 찾아낼수가 없어,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적합한 지표가 아님

- 4.1.2 혼동행렬<sup>confusion matrix</sup>
  - 혼동행렬은 모델의 분류 결과를 정리한 표
    - 모델로부터 질환이 없다고 음성판정을 받은 환자는 추가 검사 없이 귀가
    - 반면 모델로부터 질환이 있다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추가 검사 실시

	질환이 있다고 예측(양성)	질환이 없다고 예측(음성)
질환이 있음(양성)	100	30
	진양성(TP)	위음성(FN)
질환이 없음(음성)	70	800
	위양성(FP)	진음성(TN)

True Positive(TP): 모델이 양성이라고 정확하게 예측(질환이 있음) True Negative(TN): 모델이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예측 (질환이 없음)

False Positive(FP): 실제는 음성이지만 모델이 양성이라고 잘못 예측 (1종 오류) False Negative(FN): 실제는 양성이지만 모델이 음성이라고 잘못 예측 (2종 오류)

- 어떤 오류가 치명적인가?
  - 위양성결과보다 위음성 결과가 치명적임
  - 따라서 재현율을 통해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 옳음

- 4.1.3 정밀도와 재현율
  - <mark>재현율<sup>recall</sup> (또는 민감도<sup>sensitivity</sup>)은 모델이 질환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못 진단했는지 알려줌</mark>
    - <u>질환이 있는 사람을 음성</u>으로 진단한 위음성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

재현율 = 
$$\frac{$$
진양성  $}{$ 진양성 + 위음성

- <mark>정밀도<sup>Precision</sup> (또는 특이성<sup>Specificity</sup>)는 재현율의 반대 개념으로, 모델이 질환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못 진단했는지 알려줌</mark>
  - <u>질환이 없는 사람을 양성</u>으로 진단한 위양성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

정밀도 = 
$$\frac{$$
진양성 } 진양성 + 위양성

- 스펨 메일 분류기의 경우, 정밀도가 적합한 지표
  - 수신인이 받아야 할 중요한 메일을 잘못된 스팸 분류 탓에 전달받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

- 4.1.4 F-점수
  - 재현율(r)과 정밀도(p)를 단일 지표로 한꺼번에 나타내고 싶은 경우 사용
  - F-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harmonic mean으로 정의

$$F - 점수 = \frac{2pr}{p+r}$$

\*위양성: 질환이 없는 사람을 질환이 있다고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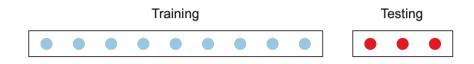
 예) 질환 판정 모델은 재현율이 더 중요한 모델이지만, 위양성 건수가 많아 정밀도가 낮다면 불필요하게 추가 검사를 받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. 따라서 재현율이 중요하지만 정밀도 역시 함께 살펴봐야함

	정밀도	재현율	F-점수
분류기A	95%	90%	92.4%
분류기B	98%	85%	9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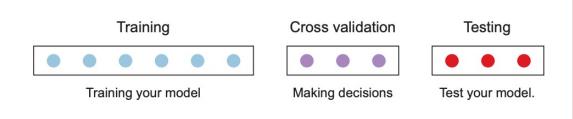
★ 모델 평가 지표는 향후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, 지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머신러닝 모델 변경이 시스템의 성능 개선으로 이어질 지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움

- 4.2 베이스라인 모델 설정 하기
  - 문제의 종류에 따라 신경망 구조에 맞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설정
  - 베이스라인 모델 설정 시 고려사항
    - 어떤 유형의 신경망을 사용해야 하는가? (MLP, CNN 등)
    - YOLO나 SSD 등의 물체 인식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가?
    - 신경망의 층수는 얼마나 두어야 할까?
    - 활성화 함수는 어떤 것을 사용할까?
    - 최적화 알고리즘은 어떤 것을 사용할까?
    - 드롭아웃, 배치 정규화 등의 규제화 기법을 사용해서 과적합을 방지해야 하는가?
  - 만일 해결하려는 문제의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, 기존 모델과 알고리즘을 답습하는 것이 좋음
  -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음 →전이학습transfer learning

- 4.3 학습 데이터 준비하기
  - 데이터 준비 과정은 문제의 유형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짐
  - 해당 절에서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 준비 기법을 다름
- 4.3.1 훈련 데이터, 검증 데이터,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기
  - 머신러닝 모델을 학<del>습</del>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함
  - 훈련데이터는 실제 학습에 사용하고,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
     평가
    - 절대,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해서는 안됨
    - 학습 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노출시키는 것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과
       다를 바 없음



- 4.3.1.1 검증 데이터란
  - 학습 중 한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모델의 정확도와 오차를 확인해서 모델의 성능을 체크하고 하이퍼파라미터를 튜닝함
  - 이 과정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학습 중에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노출시켜
     서는 안된 다는 원칙이 깨짐
  -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이 완료된 후 최종 성능을 측정하는 목적으로만 사용
  - 따라서, 훈련 데이터를 다시 분할한 별도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 중 파라미터를 튜 닝할때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 셋을 검증 데이터(validation data)라고 함



각 에포크마다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해 다음을 반복 신경망에 오차 역전파 가중차 수정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모델의 정확도와 오차 계산

모든 검증 데이터에 대해 다음을 반복 검증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모델의 정확도와 오차 계산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모델 갱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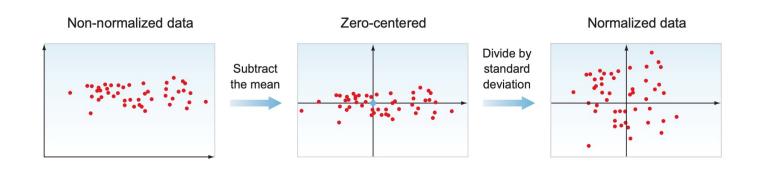
- 4.3.1.2 훈련 데이터, 검증 데이터, 테스트 데이터를 잘 분할하는 방법
  - 전통적인 분할 방법 (데이터 셋의 규모가 수 만개에 지나지 않던 시절)
    -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중은 80:20 혹은 70:30의 비율을 많이 사용
    - 검증데이터를 추가해야 한다면 60:20:20 또는 70:15:15 의 비율을 많이 사용
  - 최근 분할 방법 (데이터 셋의 규모가 큰 경우)
    - 테스트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전체의 1%로 충분
    - 예) 데이터 수가 1백만개라면 테스트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각각 1만 개씩 분할하면 <del>충</del>분
  - 데이터 분할 시 주의할 점
    - 같은 데이터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할 것
    - 예) 훈련데이터는 인터넷에서 크롤링한 데이터(고품질 이미지) 사용, 테스트 데이터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데이터(저품질 이미지) 사용

#### 4.3.2 데이터 전처리

- 전처리 기법은 다양하나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의 상태나 문제의 유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함
- 신경망은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제공되면
  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과 달리 원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도 특징을 잘 학습함
- 그러나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신경망 구조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전처리는
   여전히 필요
  - 예) <mark>컬러이미지 회색조로 변환, 이미지 크기 조절, 정규화, 데이터 강화 등</mark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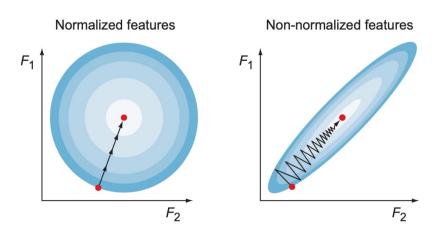
- 4.3.2.1 회색조 이미지 변환
  - 컬러이미지는 3개의 행렬이 필요하여 회색조이미지보다 학습 계산 복잡도가 높음
  - 문제 해결에 색상 정보가 불필요하거나 학습 계산 복잡도를 경감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검토해볼만 함
- 4.3.2.2 이미지 크기 조절
  - 신경망의 한계점 중 하나는 입력되는 모든 이미지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것
    - MLP를 사용하려면 입력층의 노드수가 이미지의 픽셀 수와 같아야 함
    - CNN 역시 첫번째 합성곱 층의 입력 크기를 이미지 크기에 맞춰 설정해야 함

- 4.3.2.3 데이터 정규화
  - 데이터 정규화란 데이터에 포함된 입력 특징 (이미지의 경우 픽셀값)의 배율을 조정해서 비슷한 분포를 갖게 하는 것
    - 정규화란 모든 픽셀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 각 픽셀값에서 이 평균을 빼고 표준편
       차로 나누는 방법
    -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동일한 평균과 표준편차로 정규화해야 함



- 4.3.2.3 데이터 정규화
  - 원본 이미지는 서로 다른 배율(픽셀값의 범위)을 가진 픽셀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음
    - 픽셀 값의 범위가 [0,255]인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, [20,200] 일 수도 있음
    - 정규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, 정규화를 진행하면 학습된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학습 시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음

#### 정규화 유무에 따른 경사하강법 학습 과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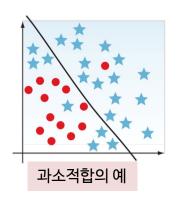
F<sub>1</sub>, F<sub>2</sub>는 입력데이터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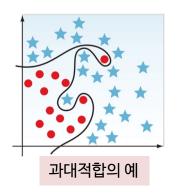
특징을 정규화하면 전역최소점에 빠르게 도달 정규화하지 않으면 가장 경사가 가파른 방향이 계속 진동하므로 전역 최소점에 도달이 늦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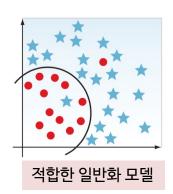
- 4.3.2.4 데이터 강화
  - 데이터 강화<sup>Data Augmentation</sup>는 규제화<del>를</del>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룸
  - 하지만 데이터 강화를 데이터 전처리로도 활용할 수 있음

- 4.4 모델을 평가하고 성능 지표 해석하기
  - 베이스라인 모델 설정 → 데이터 전처리 → 모델 학습 → 모델 평가 → 성능 지표 해석
  - 성능지표해석
    - 모델 학습이 끝나면 모델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구성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(과적합, 과소적합, 데이터 결함 등)확인 하는 과정

- 4.4.1 과적합의 징후
  - 과소적합은 모델의 표현력이 데이터에 비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
    - 과소적합의 대표적인 예: 단일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아래의 데이터 분류 불가
  - 과대적합은 반대로 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발생하는 현상
    - 훈련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 대신 훈련 데이터 자체를 기억하는 현상
    -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테스트 데이터처럼 처음 접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 성능이 낮음
    - 과적합의 대표적인 예: 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지나치게 배움
  - 바람직한 모델은 데이터에 적합한 복잡도를 가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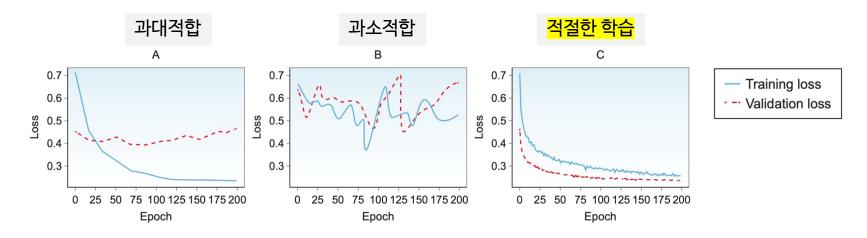






- 4.4.1 과적합의 징후
  -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높으며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면
     과대적합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
    - 예를 들어, train\_error가 1%, val\_error가 10% 라면 모델이 훈련 데이터 자체를 기억했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에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
    - 시행착오를 거치며 적절한 성능이 나올 때까지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함
  -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낮으면 과소적합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
    - 예를 들어, train\_error가 14%고 val\_error가 15%면 모델의 표현력이 낮아 데이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
    - 신경망에 은닉층을 추가하거나 학습 에포크 수를 늘리거나 다른 신경망 구조를 사용해야 함

- 4.4.2 학습 곡선 그리기
  - 학습 오차와 검증 오차의 추이를 살펴볼 때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<del>좋</del>음



#### 과대적합의 징호:

훈련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이 개선되고 있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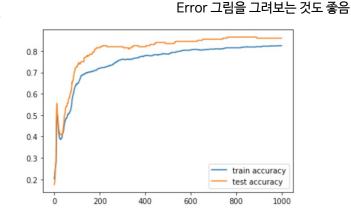
#### 과소적합의 징후:

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 모두에서 성능이 나오지 않는 신경망이며, 실질적으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. 신경망이 너무 간단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 않음

#### 적절한 학습의 징호:

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모두에서 손실 값이 개선되고 있음

- 4.4.3 실습: 신경망의 구성, 학습, 평가
  -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분할과 모델 구성, 학습, 성능 측정 결과의 시각화 과정을 빠르게 실습해보자
  - 실습 내용
    - 80:20의 비율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분할
    - MLP 모델 구성
    - 모델 학습
    - 모델의 성능 측정
    - 성능 측정 결과 시각화
  - 실습 코드
    - https://www.kaggle.com/code/sukzoon1234/2024-1-dls-w4



- 4.5 신경망을 개선하고 하이퍼파라미터 튜닝하기
- 4.5.1 데이터 추가 수집 또는 하이퍼파라미터 튜닝
  - 판단 기준 사례
    - 훈련 데이터에 대한 기존 성능이 납득할만한 수준인지 확인
    - 훈련 데이터 정확도와 검증 데이터 손실 값 혹은 정확도를 시각화해서 관찰
    - 〈과소적합 징후〉가 보인다면 데이터의 추가 수집 없이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기존
       훈련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것이 좋음
    - <mark>〈과대적합 징후〉</mark>가 보인다면 데이터 추가 수집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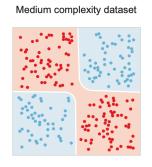
- 4.5.2 파라미터와 하이퍼파라미터
  - 하이퍼파라미터: 우리가 값을 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신경망의 학습 대상이 아님
    - 예) 학습률, 배치 크기, 에포크 수, 은닉층 수
  - 파라미터: 학습 과정을 통해 신경망이 조정하며 우리가 직접 값을 수정하지 않음
    - 예) 가중치와 편향

- 4.5.3 신경망의 하이퍼파라미터
  -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의 어려운 점: 어떤 데이터셋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, 모든 상황에 유효한 값이 없음
  - 신경망의 하이퍼파라미터
    - 신경망 구조 (3번)
      - 은닉층 수(신경망의 깊이) / 각층의 뉴런 수 (층의 폭) / 활성화 함수의 종류
    - 학습 및 최적화 (1번)
      - 학습률과 학습률 감쇠 유형 / 미니배치 크기 / 최적화 알고리즘 종류 /
         에포크 수 (조기 종료 적용 여부 포함)
    - 규제화 및 과적합 방지 기법 (2번)
      - L2 규제화 / 드롭아웃층 / 데이터 강화

- 4.5.4 신경망 구조
  - 은닉층 수(신경망의 깊이) / 각층의 뉴런 수 (층의 폭) / 활성화 함수의 종류
- 4.5.4.1. 신경망의 깊이와 폭
  - 신경망의 깊이와 폭은 신경망의 학습 능력과 직결됨
  - 신경망의 규모가 작으면 과소적합이 발생, 규모가 너무 크면 과대적합 발생
  - 신경망의 적당한 규모를 가늠하려면 시작점을 선택하고 성능을 관찰한 다음 규모를 가감(+ 혹은 -)해야 함
  - 데이터 셋이 복잡할 수록 신경망의 학습 능력이 많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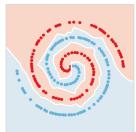
Very simple dataset

Can be separated by a single perceptron



Can be separated by adding a few more neurons





Needs a lot of neurons to separate the dat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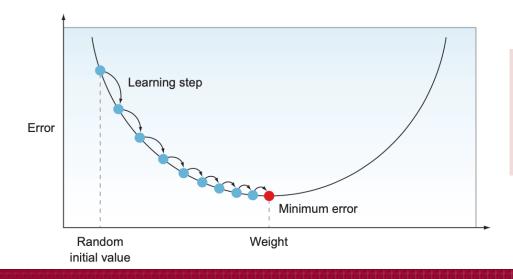
#### 4.5.4.1. 신경망의 깊이와 폭

- 모델의 학습 능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(은닉층 수 또는 유닛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)
   과적합을 일으켜 훈련 데이터 자체를 기억하는 현상이 발생 → 은닉층의 유닛수 감소
- 모델의 학습 능력이 지나치게 높아도 적절한 규제화(드롭아웃 또는 기타)를 적용하면
   과적합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음
- 모델의 학습 능력이 부족하면 (은닉층 수 또는 유닉 수가 부족한 경우) 과소적합을
   일으킴 → 은닉층의 유닛수 증가

#### 4.5.4.2. 활성화 함수의 종류

- 활성화 함수는 뉴런에 비선형성을 도입하는 수단
- 활성화 함수는 연구가 활발한 분야
- 일반적으로 ReLU와 그 변종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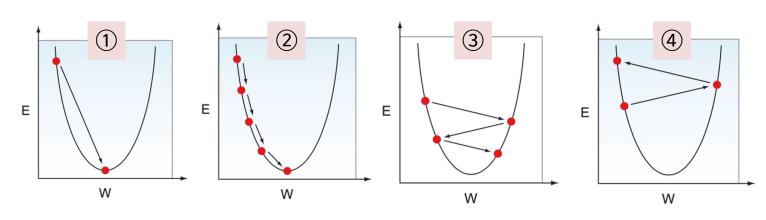
- 4.6 학습 및 최적화
  - 신경망 구조를 확정했으면, 학습과 최적화 과정에 관여하는 하이퍼파라미터를 살펴보자.
- 4.6.1 학습률과 학습률 감쇠 유형
  - 최적화 알고리즘 설정에서 오차 함수의 경사를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내려갈지
     결정해야 하는데 이 보폭이 바로 학습률을 의미함
  - 학습률은 오차 함수의 경사를 얼마나 빨리 내려갈지를 결정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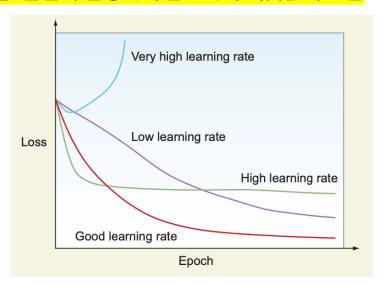
학습률은 가장 중요한 하이퍼파라미터로, 항상 잘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. 단 하나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할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률을 조정해야 한다.

-요수아 벤지오-

- 4.6.1 학습률과 학습률 감쇠 유형
  - ① 학<del>습률을</del> 절묘하게 이상적으로 설정한다면, 한번에 최소점에 도달
  - ② 학습률이 이상적 학습률보다 작다면 또는 훨씬 작다면, 시간이 걸릴 뿐 결국
     최소점에 도달
  - ③ 학습률이 이상적 학습률보다 크다면, 그럭저럭 괜찮은 지점에서 파라미터가 수렴할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소점과는 거리가 있음
  - ④ 학습률이 이상적 합습률보다 훨씬 크다면, 가중치는 최소점을 지나쳐 오히려 원래보다 더 최소점에서 멀어지게 되며, 이러한 현상을 발산이라고 함



- 4.6.1 학습률과 학습률 감쇠 유형
  - 학<del>습률</del>의 값은 최적화 속도와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
  - 에포크 수에 따른 손실 값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사실 관찰 가능
    - 작은 학습률: 손실은 계속 감소하지만 수렴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림
    - 큰 학습률: 학습 전과 비교하면 손실은 작지만 최소점과는 거리가 멈
    - 아주 큰 학습률: 초기에는 손실이 감소하지만 어느 순간 손실이 증가
    - 적당한 학습률: 손실이 일정하게 감소하며 최솟값에 도달



- 4.6.2 최적의 학습률을 정하는 방법
  - 모든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기본 값으로 미리 설정된 학<del>습률은 좋은 출</del>발점 역할을 함
    - 각각의 최적화 알고리즘에도 미리 설정된 기본값이 있음
  - 학습 시 출력되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 값을 분석하는 법
    - 파라미터가 수정될 때마다 val\_loss 가 감소한다면 설정된 하이퍼파라미터는 정상임.
       개선이 멈출 때까지 학습을 계속 진행
    - 학습이 끝나고 val\_loss 가 계속 감소 중이라면, 학습률이 너무 작아 파리미터가 수렴하지 못한 상태. 이런 경우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을 사용
      - 학<del>습률은</del> 그대로 두되 에포크 수를 늘려 학<del>습을</del> 다시 시작
      - 학<del>습률을</del> 조금 증가시키고 학<del>습을</del> 다시 시작
    - Val\_loss 가 증감을 반복하며 진동한다면 학습률이 너무 큰 것
      - 학<del>습률을</del> 감소 시켜 학<del>습을</del> 다시 시작

- 4.6.3 학습률 감쇠와 적응형 학습
  - 학습률 감쇠learning rate decay 는 학습을 진행하는 도중 학습률을 변화시키는 방법
  - 대부분 고정된 학습률보다 성능이 뛰어나며 학습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음
  - 학습 초기에는 큰 학습률을 적용하다가 점차 학습률을 감소시켜 최소점을 지나치는 현상을 방지
  - 학<del>습률</del> 감쇠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
    - 〈계단형 감쇠〉는 일정 비율로 학<del>습률을</del> 감소시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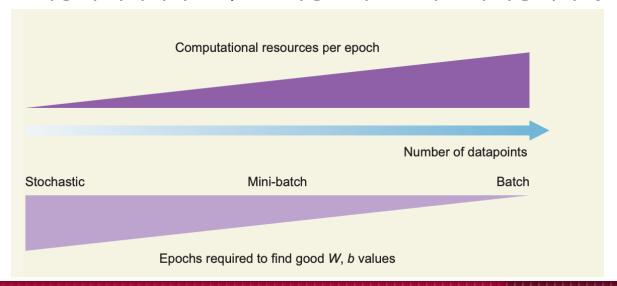


- 4.6.3 학습률 감쇠와 적응형 학습
  - 〈지수형 감쇠〉는 8 에포크 마다 학습률에 0.1을 곱하는 지수 감쇠를 적용
    - 계단형 감쇠에 비하면 파라미터가 수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수렴에 다다를 수 있음



- 〈적응형 학습〉은 학습의 진행이 멈추는 시점에 학습률을 경험적으로 설정된 값만큼
   자동으로 수정하는 방식
  - 학습률이 필요한 시점에 감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는 상황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함
  - 적응형 학습은 일반적인 학습률 감쇠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임
  - Adam과 Adagrad가 적응형 학습이 적용된 최적화 알고리즘임

- 4.6.4 미니배치 크기
  - Batch\_size는 필요한 리소스 요구 사항과 학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침
  - 사용 중인 데이터 셋의 크기가 작다면, BGD를 사용해도 빠른 시간안에 학습 가능
  - 큰 데이터 셋을 사용 중이라면, 64 혹은 128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, 만족스러운 학습속도가 나올 때까지 32, 64, 128, 256, 512, 1024와 같이 배치 크기를 두배씩 늘림
  - 그러나 이때 사용중인 컴퓨터의 메모리의 용량을 고려해야 함
  - 1024 이상의 미니배치는 학습은 가능하지만 그리 널리 사용되지 않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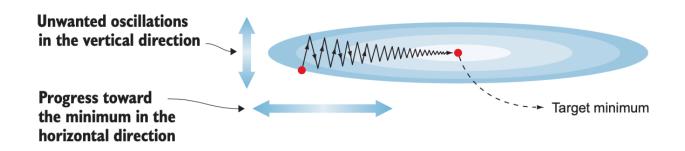
- 4.6.4 미니배치 크기
  - 경사 하강법 리뷰
    - 배치경사하강법 batch gradient descent, BGD
      - 데이터 셋 전체를 한번에 신경망에 입력해서 순방향 계산, 오차 계산, 경사 계산을 거쳐 오차를
         역전파시켜 가중치를 수정
      - 최적화 알고리즘이 전체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오차를 계산하므로 가중치 수정은 한 에포크에 한번만 일어남
      - 미니배치의 크기가 전체 데이터셋인 확<del>률</del>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생각하면 됨
      - BGD의 장점은 노이즈가 적고 최소점까지 큰 보폼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
      - 단점은 가중치를 한번 수정하는데 전체 데이터셋이 필요하므로 학습 속도가 느리며 데이터셋의
         규모가 클수록 더 심함
      - 또한 메모리 요구량도 증가하 BGD를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
      - 소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 유리

- 4.6.4 미니배치 크기
  - 경사 하강법 리뷰
    - 확률적경사하강법 stochastic gradient descent, SGD
      - 온라인 학습 이라고도 함
      - 훈련 데이터를 한번에 하나씩 신경망에 입력해서 순방향 계산, 오차, 경사 계산을 고쳐 오차를 역전파시켜 가중치를 수정함
      - SGD는 데이터 하나마다 가중치가 수정됨
      - 따라서 SGD는 가중치의 진행 방향에 진동이 심하며,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함
      - 이러한 노이즈는 학습률을 감소시켜 억제할 수 있는데 대체로 BGD보다 나은 성능을 보임SGD를
         사용하면 전역 최소점에 빠르고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음
      - 반면 단점은 한번에 데이터 하나만 처리하므로 데이터 여러 개를 한번의 행렬 연산으로 처리하는
         학습 계산 속도의 이점을 살리기 어려움

- 4.6.4 미니배치 크기
  - 경사 하강법 리뷰
    - 미니배치경사하강법 mini-batch gradient descent, MB-GD
      - 배치 경사 하강법과 확률적 경사 하강법의 중간 정도
      - 가중치를 한번 수정하는데 데이터셋 전체나 데이터 하나를 사용하는 대신 훈련 데이터를 몇개의
         미니배치로 분할해서 사용
      - 이 방법을 통해 행렬곱을 이용한 계산 속도가 향상되고,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으므로
         가중치를 한번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짧아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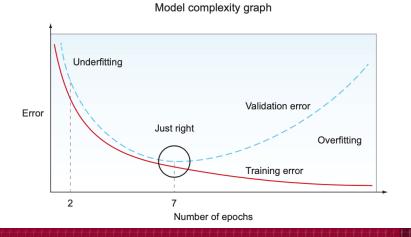
- 4.7 최적화 알고리즘
  - 오랫동안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나, 이들은 특정 유형의 문제에서만 효과적임을 증명했음. 즉, 광범위한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
  - 딥러닝 커뮤니티는 〈경사 하강법〉과 〈그 변종〉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
  - 경사하강법은 학습률을 너무 작게 설정하면 학습이 오래 걸리고, 너무 크게 설정하면 손실이 감소하지 않거나 발산하여 학습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

- 4.7.1 모멘텀을 적용한 경사 하강법
  -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오차의 최소점으로 향하면서 이동 방향에 진동이 일어남
  - 가중치 이동 방향의 이러한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멘텀<sup>momentum</sup> 이 고안됨
  - 모멘텀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중치의 이동 방향이 진동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기법
  - 모멘텀 기법은 경사가 기존 이동 방향과 같으면 이동 폭을 증가시키고, 기존 이동
     방향과 다른 방향의 경사에는 이동 폭을 감소시킴
  - 이런 방법을 통해 가중치의 진동을 완화시키고 더욱 빨리 수렴에 이를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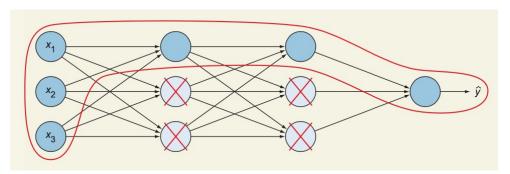


- 4.7.2 Adam
  - Adam은 적응형 모멘트 예측adaptive moment estimation의 약자
  - Adam은 모멘텀과 비슷하게 이전에 계산했던 경사의 평균을 속도항으로 사용하지만
     속도항이 지수적으로 감쇠된다는 차이가 있음
    - 모멘텀이 경사를 굴러 내려가는 공과 같다면, Adam은 무거운 공이 마찰력을 가진 바닥을 굴러 내려가며 모멘텀이 감소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음
  - Adam은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보다 학습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음
  - Adam의 하이퍼파라미터는 학<del>습률</del>만 조정하면 됨

- 4.7.3 에포크 수와 조기 종료 조건
  - 에포크epoch는 학습 진행 중 전체 훈련 데이터가 한번 모델에 노출된 횟수를 의미함
  - 에포크는 신경망의 반복 학습 횟수를 의미함
  - 반복 학습 횟수가 많을 수록 신경망은 더 많은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음
  - 신경망의 반복 학습 횟수가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학습 중 훈련 데이터의 오차와 검증
     데이터의 오차를 잘 관찰해야 함
  - 훈련 오차와 검증 오차가 함께 개선되다가 검증 오차가 증가하면서 과적합 징후 발생
  - 과적합이 일어나기 전에 학습을 종료하는 기법이 필요하며 이를 조기 종료라고 함



- 4.8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화 기법
  - 학습 중인 신경망에 과대적합이 발생했다면 신경망의 표현력을 감소시켜야 하며, 가장
     먼 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화임
  - 규제화 기법으로는 L2 규제화, 드롭아웃, 데이터 강화가 있음
- 4.8.1 L2 규제화
  - 오차 함수에 규제화항 regularization term 을 추가하는 것
  - 은닉층 유닛의 가중치가 0에 가까워지고 모델의 표현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됨
    - 가중치가 0에 가까워지면 뉴런의 역할이 상쇄되는 것



- 4.8.1 L2 규제화
  - 규제화항 정의
    - 람다는 규제화 파라미터, m은 인스턴스 수, w는 가중치

 $error function_{new} = error function_{old} + regularization term$ 

L2 regularization term = 
$$\frac{\lambda}{2m} \times \sum ||w||^2$$

error function<sub>new</sub> = error function<sub>old</sub> + 
$$\frac{\lambda}{2m} \times \sum ||w||^2$$

$$W_{new} = W_{old} - \alpha \left( \frac{\partial Error}{\partial W_x} \right)$$

■ L2규제화는 가중치를 0을 향해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중치 감쇠 weight decay 라고 부르기도 함

■ 4.8.1 L2 규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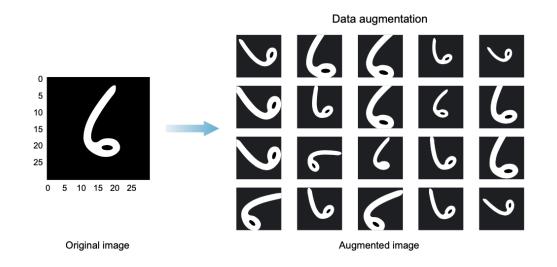
- Lambda 값은 하이퍼파라미터로 직접 조정해야 하지만 기본값으로도 잘 작동함
- L2 규제화를 적용해도 과적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, Lambda 값을 증가시켜 모델의 복잡도를 더욱 낮추면 됨

Lambda

#### 4.8.2 드롭아웃층

- 드롭아웃 역시 신경망의 복잡도를 낮춰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
- 드롭아웃은 학습 반복마다 전체 뉴런 중 미리 정해진 비율 p dropout rate 만큼의 뉴런을 해당 반복 회차 동안 비활성화(드롭아웃) 하는 것
- P는 0.3에서 0.5 사이의 값으로 설정함. 초기에는 0.3으로 시작해서 과적합이 발생하면 비율을 올려 대응하면 됨
- L2규제화와 드롭아웃 모두 뉴런의 효율을 떨어뜨려 신경망의 복잡도를 감소시킴
- 차이점은 L2규제화는 가중치를 통해 뉴런의 영향력을 억제한다면, 드롭아웃은 특정 뉴런의 영향력을 완전히 비활성화 함

- 4.8.3 데이터 강화
  -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
  - 데이터 추가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기존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가능
  - 데이터 강화는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 데이터의 양을 늘려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
  - 데이터 강화의 예로는 이미지 반전, 회전, 배율 조정, 밝기 조절 등 이 있음



- 4.8.3 데이터 강화
  - 데이터 강화는 모델이 특징 학습 중 대상의 원래 모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준다는
     의미에서 일종의 규제화 기법으로 취급되기도 함
  - 데이터 강화는 신경망이 새로운 데이터에 노출되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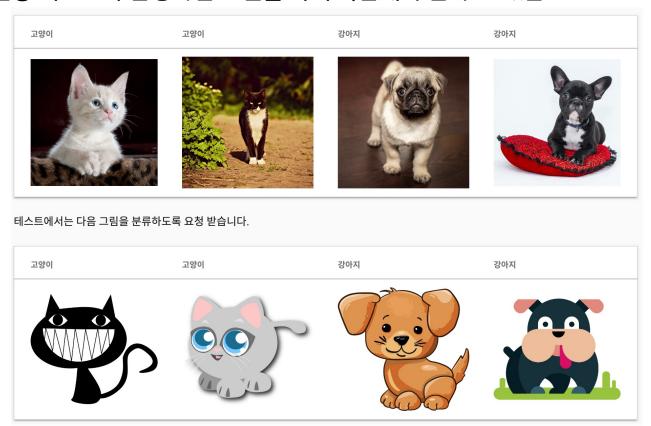
```
import torch
from torchvision.transforms import v2

H, W = 32, 32
img = torch.randint(0, 256, size=(3, H, W), dtype=torch.uint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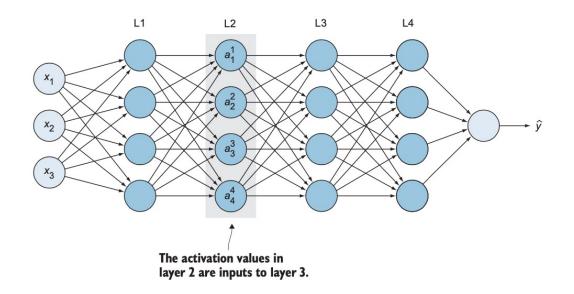
transforms = v2.Compose([
    v2.RandomResizedCrop(size=(224, 224), antialias=True),
    v2.RandomHorizontalFlip(p=0.5),
    v2.ToDtype(torch.float32, scale=True),
    v2.Normalize(mean=[0.485, 0.456, 0.406], std=[0.229, 0.224, 0.225]),
])
img = transforms(img)
```

- 4.9 배치 정규화
  - 앞부분에서 학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<mark>데이터 정규화</mark>를 설명함
  - 더불어 앞서 배운 정규화 기법은 입력층에 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에 집중되어 있었음
  - 추출된 특징을 정규화하면 은닉층도 정규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
  - 추출된 특징은 변화가 심하므로 정규화를 통해 신경망의 학습 속도와 유연성을 더욱
     개선할 수 있음
  - 이런 기법을 <mark>배치 정규화</mark> batch normalization, BN 이라고 함

- 4.9.1 공변량 시프트 문제 (covariate shift)
  - 공변량(학습 데이터)의 분포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상황을 의미
  - 공변량 시프트가 발생하면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 할 수도 있음



- 4.9.2 신경망에서 발생하는 공변량 시프트 문제
  - 배치 정규화는 은닉층 출력의 분포가 변화하는 것을 억제 함
    - 즉, 값 자체는 변화하지만 값의 <mark>평균과 분산은 변화하지 않음</mark>



- 4.9.3 배치 정규화의 원리
  - 공변량 시프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배치 정규화가 제안되었음
  - 배치 정규화는 각 층의 활성화 함수 앞에서 다음 연산을 추가하는 방법임
    - 입력의 평균을 0으로 조정 (입력미니배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)

$$\mu_{B} \leftarrow \frac{1}{m} \sum_{i=1}^{m} x_{i} \qquad \qquad \text{Mini-batch mean}$$

$$\sigma_{B}^{2} \leftarrow \frac{1}{m} \sum_{i=1}^{m} (x_{i} - \mu_{B})^{2} \qquad \qquad \text{Mini-batch variance}$$

■ 평균이 0으로 조정된 입력을 정규화 (£은일반적으로 10<sup>-5</sup>)

$$\hat{x}_i \leftarrow \frac{x_i - \mu_B}{\sqrt{\sigma_B^2 + \varepsilon}}$$

면산 결과의 배율(γ) 및 위치(β) 조정 (두 가지 파라미터를 찾기까지 약간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찾고나면 빨라짐)

$$y_i \leftarrow \gamma X_i + \beta$$

 배치 정규화 기법을 적용하면 각 층의 입력이 최적의 배율과 평균으로 조정되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음

- 4.9.4 배치 정규화 구현하기
  - 정규화된 결과를 다음 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은닉층 뒤에 배치 정규화층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현됨

```
신경망에 배치 정규화를 추가한 예
import torch
import torch.nn as nn
import torch.nn.functional as F
model = nn.Sequential(
   nn.Linear(in_dim, mid_dim), # linear layer 추가
   nn.ReLU(),
                           # 활성함수 layer 추가
   nn.BatchNorm1d(mid_dim), # Batch norm layer 추가
   nn.Dropout(p=0.5),
                      # Dropout layer 추가
   nn.Linear(mid_dim, out_dim), # linear layer 추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# 활성함수 layer 추가
   nn.ReLU(),
   nn.BatchNorm1d(out_dim), # Batch norm layer 추가
   nn.softmax(dim=1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# 최종 softmax layer 추가
```

#### ■ 4.9.5 배치 정규화 복습

- 배치 정규화는 입력층뿐만 아니라 은닉층도 정규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
- 배치 정규화 덕분에 뒷층의 학습이 앞층의 학습 결과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각 층마다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음
- 앞층의 출력이 항상 같은 평균과 분산을 갖게 되므로 뒷층의 관점에서는 입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효과가 있으며, 그만큼 뒷층의 학습이 쉬워지게 되었음
- 즉, 배치 정규화는 은닉층 유닛의 출력이 항상 표준 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법

■ 4.10 프로젝트: 이미지 분류 정확도 개선하기



https://www.kaggle.com/t/49433a54b7864351a932c6ba1ee55aca